

## CFO 네트워크

### 하반기 경기 수출이 버팀목 역할할 것

제6차 'KOVA CFO네트워크'는 '벤처코리아2003'과 연계되어 지난 6일 오후 코엑스에서 진행됐다.

'CFO네트워크'에서는 보다 폭넓은 활동을 위해 운영기로한 분과위원회를 소개한 후 메리츠증권 오용현 팀장의 'REITs'의 기본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강연이 있었다. 이어서 최근 경제동향의 핫이슈로 떠오른 '주택경기변동요인으로 본 부동산 시장의 전망'이란 주제로 LG경제연구소 김성식 서비스산업팀장이 발표했다.

김 팀장은 주제발표에서 "우리 경제는 지난 상반기중 2%대로 성장률이 급락한 데 이어 하반기 들어서도 내수침체로 경기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하반기에 수출이 비교적 호조를 보이면서 경기 버팀목 역할을 하겠지만 내수 침체로 경기부진은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CFO네트워크'는 지난해 6월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분기별 1회씩 정기 네트워크 모임을 개최하고 있으며, 참가대상은 벤처기업의 재무담당 최고책임자 또는 담당자다.

## 벤처정책포럼

### 코스닥 독립성과 정체성 논의가 우선되어야



벤처기업에 대한 현안과 정책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벤처정책포럼'이 6일 오후 한국응용경제학회 주최로 열렸다. 이 행사는 학회회원 및

벤처인, 학생, 일반인 등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연세대학교 서승환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양영석 박사가 'Version 2.0 코스닥을 위한 시장의 질적개선과 효율성 제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노택선 교수가 'MVNO(가상이동통신사업자)의 도입과 정책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연구성과를 펼쳤다.

양영석 박사는 강연에서 "올들어 코스닥과 선물, 거래소를 하나로 통합, 통합거래소로 출범하는 방안이 확정 추진되고 있다"며 "그러나 통합에 따른 시장효율성뿐만 아니라 코스닥의 독립성과 정체성에 대해 깊이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택선 교수는 MVNO를 활용한 통신업계의 경쟁체제에 대해 발표했다.

한편, 주제발표에 이어 '벤처 산업과 벤처 금융시장의 발전방향'에 대한 종합토론이 열려 참석자들과 관객들의 관심을 모았다.

## 벤처기업, 향후 10년내 경제 핵심엔진 부상



벤처홍보네트워크(위원장 박근우)는 '벤처홍보인, 벤처를 말하다'를 주제로 제1회 '벤처홍보네트워크포럼'을 6일 오후 코엑스 208호에서 개최했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벤처기업 종사자 285명, 일반 시민 316명 등 총 6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벤처기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벤처기업을 바라보는 내외부의 시각을 객관적으로 조명하고 벤처기업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

이번 행사의 사회는 강원화 부위원장(유비케어 홍보팀장)이 맡아 주관했으며, 벤처기업 인식조사 결과와 벤처기업 홍보현황조사 결과는 윤종진 자문위원(로코스 홍보팀부장)과 한명국 운영위원(하우리 전략기획팀장)이 각각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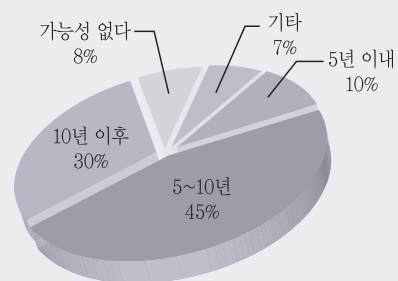
벤처홍보네트워크는 이날 조사결과 발표에 이어 객석 참가자들로부터 홍보 관련 애로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아 선배 홍보담당자들이 답변을 해주는 '벤처홍보 클리닉' 행사도 가졌다. '벤처홍보 클리닉'에는 고현정 운영위원(성진씨앤씨 홍보팀장), 김석영 운영위원(헨디소프트 홍보팀장) 등 실무경험이 풍부한 홍보담당자가 '일일 닥터'로 나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노하우를 들려줬다.

한편, 이번 설문결과 벤처기업이 10년 이내에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성장엔진이 될 수 있다는 데 전체 55%(336명)가 답변했으며, 10년 이후라고 보는 사람은 30%(183명)으로 밝혀져 벤처의 가능성을 국민 대다수가 여전히 높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능성이 없다고 답변한 사람은 8%(47명)에 그쳤다.

벤처에 대한 언론보도 성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일부 사례를 확대 해석(61%), 과장 보도(29%) 등 90%(540명)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벤처기업 관련 언론의 보도에 대한 불신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한 보도, 심층분석 보도 등은 2%에 불과했다. 공정성에 대한 질문에서도 공정하다는 답변은 겨우 6%였다.

그러나, 언론이 벤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47%)에 비해 부정적 전망(18%)이 적게 나타나 향후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는 기대를 갖고 있음이 밝혀졌다.

벤처기업이 우리경제의 핵심엔진이 될 수 있는 시기



벤처기업의 성장장애요인에 대해 경영능력 부족(47%)이 많았으나, 투기성 자본(24%)과 정부정책 부재(24%)도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결과 벤처기업에 대해 벤처인과 일반인의 인식 차이가 크지 않음에 따라 벤처홍보네트워크는 그 동안 벤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노력과 함께 바람직한 벤처 문화 정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